

## 6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 경기북부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1 예다움작은도서관/백정희	정본백석시집/백석 지음. 고형진 엮음/문학동네	또 인절미 송구떡 콩가루차떡의 내음새도 나고 끼때의 두부와 콩나물과 뽕은 잔디와 고사리와 도야지비계는 모두 선득선득하니 찬 것들이다 -여우난골죽 중에서-
2 모당공원작은도서관/김정희	백석의 맛 / 소래섭 / 프로네시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지, 세계란 무엇인지, 또 '나'와 세계는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3 고양작은도서관/심은경	아무튼, 떡볶이/요조/위고	맛없는 떡볶이 집이라도 존재하는 것이 나는 좋다. 대체로 모든게 그렇다. 뭐가 되었든 그닥 훌륭하지 않더라도 어쩌다 존재하게 되었으면 가능한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중략)기왕 이렇게 된거 오래오래 살아 있었으면 하는 것이다.
4 화전작은도서관/임희정	산딸기크림봉봉/ 에밀리젠킨스 / 씨드북	음,음,음 살살 녹아요, 녹아!
5 화전작은도서관/임희정	달콤 싹싹한 초콜릿 / 라우라 에스키벨 / 민음사	사람들은 각자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불꽃을 일으켜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만 합니다.
6 그루터기 작은도서관/이병무	화교문화를 읽는 눈 짜장면 / 유중하 글, 사진 / 한겨레출판	인천을 비롯한 한반도의 화교들은 중국에서 짜장면을 날라 왔고 일본에서는 우동과 짬뽕을, 그걸로 모자라서 '다꾸앙'도 날라 왔다. 말하자면 한국의 중국음식점 식탁이야말로 한중일의 허브인 것이다.
7 와이시티작은도서관/김경진	딸에게 주는 레시피/공지영/한겨레출판	네가 살아온 모든 날 중에서 오늘 네가 제일 아름답다.
8 재미있는느티나무온가족도서관/이승희	눈물빵/고토 미즈키/천개의바람	아! 눈물에 젖은 식빵 테두리는 짭조름해서 간이 딱 맞았나 봅니다.
9 햇빛21작은도서관/윤영연	10대와 통하는 요리 인류사/권은중 글/철수와영희	음식에는 인류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리는 겸손하고 수고로운 작업입니다.
10 마상공원작은도서관/김은미	먹이는 간소하게 / 노석미 /사이행성	달래는 이름도 예쁘지만 그 향을 맡는 순간 밥맛이 돈다. 달래 한 줌을 캐서 달래장을 만들어 달래 달걀밥을 해 쓱쓱 비벼 먹는다. 이런 호사는 이른 봄날 잠깐만 가능한 일.

# 6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 광주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1	책들이도서관/임미정	팔빙수의 전설 / 이지은/ 웅진주니어	맛있는거 주면 안잡아먹~지! 호랑이도 사로잡은 팔빙수! 팔죽할멈과 호랑이의 여름 버전이다.
2	아이숲어린이도서관/문상희	먹이는 간소하게/노석미 글/사이행성	티브이에 넘쳐나는 맛집과 화려한 음식, 엄청난 양을 먹는 먹방에 지쳐가는 요즘입니다. 간소하게 재료를 구하고 간소하게 요리를 해먹는 모습에서 음식의 본연의 기능을 생각하게하면서 진심에서 식욕이 우러납니다.
3	책문화공간 봄/위명화	오늘 뭐 먹지 / 권여선 / 한겨레	<p>권여선 작가의 음식 관련 산문집이다. 주변에서 '안녕, 주정뱅이'를 쓴 후 이미지가 술로 각인되었으니 술 이야기를 뺀 책을 쓸 때가 되었다고 해서 모국어를 잃은 작가의 심정으로 술이야기를 뺀 소설을 마감했으나 매우 아쉬웠다고 한다. 술 이야기를 다시 쓸 기회를 호시탐탐 노렸다가 음식 얘기를 쓰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안주 이야기가 보태지니 당연히 술 이야기가 나와서 삶에 생기가 돈다고 한다. 술을 잘 먹지 못하지만 이 책을 읽고 음식과 술의 조합을 만나보고 싶다. 책 속 인상깊은 장면은 '김밥은 착하다.'</p> <p>김밥은 아름다운 음식이다.</p> <p>재료의 색깔만 잘 맞추면 이보다 어여쁜 먹거리가 없다. 그래서 김밥에는 꽃놀이와 나들이의 유혹이 배어 있는지 모른다. 지참하기 간단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꽃밭을 닮아서.</p>

## 6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 대구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1 개인회원/손수정	아무튼, 술/김혼비/제철소/	우리는 왜 술이란 음식과 친해졌을까? 술은 인생에서 우리에게 어떤 위안을 주는 것일까? 난 술을 먹기 위해 안주를 먹는 것일까? 안주를 먹기 위해 술을 먹는것을까? 인간사에서 술이란 빠지지 않은 음식이다 즐거운 날에도 슬픈 날, 외로운 날 함께하는 술 과하면 화를 부르는 술 그래도 나에겐 술은 나의 경계를 조금은 무너뜨리고 나를 나로서 오롯이 있게도 하는 음식이다
2 예성 작은도서관	백년식사 /주영하 /휴머니스트	지구 온난화와 코로나19 감염병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음식은 생태학이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의 100년도, 생태를 고려한 식재료로 요리한 음식이 차려진 '생태학적 식탁'에서 여러 사람이 어울려 '함께 식사'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3 해봄도서관	조선셰프 서유구/곽미경/ 씨앗을 뿌리는 사람	조선 주류층인 양반의 허위의식을 극도로 경멸했다. 자신이 먹는 밥 한 톨, 입는 옷 한 벌, 집 짓는 흙별돌이나 쓰는 도구 하나 생산하지 못하는 주제에 양반이라는 신분에 집착하여 세상 경륜을 논하고 시를 얻는 것을 밥 벌여지나 하는 짓으로 여겼다. 오죽하면 "흙으로 빛은 국이요" "종이로 만든 떡"이란 표현을 썼을까! 증시조할머니는 5살 때 병을 앓아 청맹이었다. 소경임에도 불구하고 가문의 생계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팔았다. 조선의 3대 현모로 신사임당, 장계향과 더불어 고성 이 씨 할머니도 추앙받고 있다.
4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더불어숲	슬픈 옥수수 / 케이틀린 세틸리 글;김은영 옮김 / 풀빛	지구에 사는 인구 중 무시할 수 없는 숫자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와중에, 다른 한편에서는 생물연료, 가축사료, 플라스틱과 화학물질을 생산하기 위해 기후변화의 주범인 에너지를 쏟아붓고, 그러면서 우리는 만들어놓은 음식의 절반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보라. -본문 중
5 책마실도서관	아무튼,비건 /김한민 / 위고/2018	작가가 한때는 남들처럼 고기를 즐겼던 자신이 어떻게 비건이 되었으며, 어떻게 이를 지속해오고 있는지, 그리고 결국은 동물이 어떻게 자신에게로 다가왔는지 이 책에서 차근차근 풀어내고 있다. 아울러 '비건적인' 작은 노력들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면서, 완벽함에 매몰되지 않고 천천히 비건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비건에 대해 자주 나오는 질문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비건의 논리와 철학을 보여준다.
6 개인회원/김경희	그렇게 치킨이 된다. 정은정 글/한승무 그림/노란상상	치킨 한마리에 담겨 있는 삶을 시켜먹다. 우리가 자주 시켜 먹는 치킨 한마리에는 평범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이웃들의 삶이 스며 있어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먹는 치킨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맛보아요!
7 마을도서관 햇빛따라	요리는 감이여 / 51명의 충청도 할매들 /창비교육	비법이랄 것도 없어. 요리는 감으로 하는 것이여.
8 그나라어린이도서관	나의 비거니즘 만화/보선/푸른숲	중요한 건, 불완전한 실천이라도 의미가 있다는 사실! 다른 존재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비거니즘의 세계로 어서 오세요!

## 6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 사무국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1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이은주	요리는 감이여/ 창비/ 51명의 충청도 할매들	맛있게 될 때가 언젠지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도 똑같이 하면 돼. 정신 차려서 해야지
2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채은아	밥.빵.국수 아시아의 식탁 / 글 이은미 그림 박태희 / 키다리	각국의 음식을 일상적으로 먹게 된 만큼 우리는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음식을 바탕으로, 서로의 문화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3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박현진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호프 자련/김은령 옮김/김영사	오늘날 인간이 10억 톤의 곡물을 먹어 소비하는 동안 또 다른 곡물 10억 톤이 동물의 먹이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게 먹여서 우리가 얻는 것은 1억 톤의 고기와 3억 톤의 분뇨다. (p.75)
4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정예서	만두의 더운 날 / 윤식이 / 소원나무	돌아오는 여름에는 우리에게도 냉면 같은 탈출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5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김혜령	구해줘, 밥 / 한겨레출판 / 김준영	세계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풀을 음식으로 만들어 먹는 민족은 유래를 찾기 힘들다. 그냥 보면 눈발 독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어디에도 쓸모 없는 잡초처럼 보이는 풀들이 그 존재 가치를 아는 어머니 아버지들의 눈에 띄면 특별한 맛을 내는 음식으로 바뀌어 밥상에 오른다. 그런 어른들을 보면 나는 언제나 존경심을 감출 수가 없다.
6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김현실	풀잎 국수/백유연/웅진주니어	싱그러운 풀잎, 알록달록 꽃잎, 고소한 씨앗, 새콤달콤한 국물이 모두 준비됐어요! 이제 그릇에 조심조심 옮겨 담으면 ..... 짠! 가슴까지 시원한 풀잎 국수가 완성됐어요.

## 6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 서울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1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 /박연진	달콤 씹사름한 초콜릿 /라우라 에스키벨 /민음사	헤르트루디스는 두 눈을 꼭 감고 티타가 오래오래 살면서 가족의 비법이 담긴 맛있는 요리를 계속 만들어 주었으면 하고 기도했다. 그녀나 로사우라는 음식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티타가 죽는 날 티타와 함께 데 라가르사 가족의 과거 역시 함께 묻힐 것이다.
2	작은도서관 함께놀자/박계순	외로운 사람끼리 배추적을 먹었다 / 김서령/ 푸른역사	불린 햅쌀을 참기름에 볶다가 물을 붓고 끓인 갱미죽. 햇볕을 실컷 받고 천천히 여문 쌀알을 다시 낮은 열로 몽근히 익힌 후 오래 묵은 간장을 푹푹 끼얹어 먹는 죽이다. 아무것도 안 넣은 흰죽, 아플 때 엄마가 돌솥에 끓여주던 그 옛날의 흰죽, 나는 지금 입안 점막에 제법 상처가 있고 혀의 표면도 조금 굳어 있는 상태인데 흰죽은 그 아픈 부분을 순하게 따스하게 다정하게 어찌면 슬쩍 서러운 듯도 하게, 상처에 바르는 연고처럼 좌르륵 도포한다. (p.188~189)
3	성북작은도서관네트워크 -성북동작은도서관/안덕순	엄마와 복숭아/ 유혜울/후즈갓마이테일	싹. 그렇게 말하면 우리 아기들이 깜짝 놀라잖아.
4	작은도서관 함께크는우리/엄자영(벼와보리)	이세린 가이드/ 김정연/ 코난북스	실제 음식이 아닌 음식모형 제작자인 이세린의 혼잣말 대잔치 만화다. 전작 만화 '혼자를 기르는 밥'보다는 내용이 훨씬 순화되었지만, 음식과 연관된 여러 개인적, 사회적 에피소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온다. 웃기기만 하지 않는 씩씩하고 날카로운 것도 많다.
5	성산글마루작은도서관/장선덕	오늘은 좀 매울지도 몰라/강창래/ 문학동네	아무리 슬픈 이야기라도 글로 쓰면 위로가 되었다
6	도담도담 작은도서관 / 권영미	사피엔스/유발하라리/ 김영사	범인은 한 줌의 식물 종, 밀과 쌀과 감자였다. 이들 식물이 호모 사피엔스를 길들였지 호모 사피엔스가 이들을 길들인 게 아니었다.
7	작은도서관 웃는책 / 김자영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 호프자런/ 김영사	"우리 각자는 언제 어디서 더 많이 소비할까 대신 어떻게 덜 소비할 수 있을지 스스로 질문해야 한다. 세상의 모든 비즈니스와 산업계가 우리를 대신해 이런 질문을 던질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8	와글와글작은도서관 / 박송현	오늘 뭐 먹지?/권여선/한겨레출판	안녕 주정뱅이를 읽고 권여선 작가님의 열렬한 팬이 되었다. '오늘 뭐 먹지?'를 읽고 권여선 작가님의 술과 음식에 대한 사랑에 큰 동감과 공감이 쌓였다. 술과 음식에서 이토록 깊은 통찰과 담론을 던질 수 있다니... 권여선 작가님이 꼭 건강하셔서 술과 음식을 인생 여정에서 계속 즐겨나가시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그분의 책을 열심히 읽고 또 읽으며 응원한다.
9	초록나라도서관 /김영애	대추 한알/ 장석주/이야기꽃	“저게 저절로 붙어질 리 없다. 저안에 태풍 몇 개 저안에 천둥 몇 개 저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글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안에 땀별 두어 달 저안에 초승달 몇 날
10	대조꿈나무어린이도서관 /박순선	꽃밥/ 정연숙 글, 김동성 그림/논장	일기장 속의 할머니가 나에게 알려주셨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꽃은 하얀 벼꽃이라는 것을... 우리가 먹는 밥은 꽃밥이다. 수백 송이 벼꽃이 피어난 꽃밥. (쌀 한 톨에 담긴 농부의 손길과 정성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밥힘으로 사는 민족, 밥 한 끼의 소중함,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11	아름드리작은도서관 /송영순	먹히는 자에 대한 예의/김태권/한겨레출판	가격이 싸다고 '착한 치킨'이라고 말하기 불편합니다. 그럼 동물 학대를 하지 않고 닭을 키운다면? 소비자가 돈을 더 내더라도 생산자에게 제값을 준다면? 이른바 '윤리적 소비'가 나온 배경이죠. 게다가 시간을 들여 운동을 시키며 키운 닭은 스무하루만 키운 공장식 닭보다 살코기의 맛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p.188)
12	흥부네그림책도서관 /김진희	아이스크림이 꿈꿨던 구도 노리코 지음, 윤수정 옮김/책읽는 곰	도서관에 오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우당탕탕 야옹이 시리즈 그림책입니다. 그림책 읽고 나니 달콤 시원한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고 싶어졌어요. 여름이 성큼 왔네요.
13	꿈틀어린이도서관 / 이소영	한그릇 /변정원/보림	농장 아저씨의 사랑을 듬뿍 받은 계란에게, 처음 껍질을 깨는 것은 조금 두렵기도 하겠지만 그래야 우리가 만날 수 있어.

## 6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 울산경주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1	더불어숲작은도서관 이귀연	음식혁명/존 로빈스/시공사	전 세계 인구 중 음식을 과다하게 섭취하면서도 영양실조 상태에 있는 사람은 12억 명이다. (p.409)
2	명덕이음작은도서관 김영란	죽은시인의 사회/N.H클라인바움/서교	시, 낭만, 사랑, 아름다움이 세상에 있는 까닭은? 그건 바로 삶의 양식이기 때문이다.
3	문수산더샵작은도서관 문신임	처음 읽는 음식의 세계사!/미야자키 마사카츠/탐나는책	햄버거의 유래에 대해 알게 돼서 재미있었음.

## 6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인천지부			
소속 / 이름	책 사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1 콩세알도서관/권양녀		세계야채여행기/ 다마무라 도요오 /정은문고	이집트에 '누에콩밭은 죽은 자의 영혼이 되살아나기를 기다리는 장소'라는 말이 있었다. 프랑스에는 '양배추를 심으러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은퇴하여 자유를 얻는다'라는 뜻이다. 텃밭 가득 양배추가 자라나는 광경은 평온하고 흡족한 일상을 상징한다.
2 신나는여성주의도서관 랄라/ 보화		요리는 감이여/ 51명의 충 청도 할매들/ 창비교육	저울 찾지 말고 감으로 해보는 거지 뭐. 사실 우리 인생도 감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닌가.
3 푸른마을함박도서관/ 감 지선		오늘의 기분은 카레 / 노래/ 위즈덤하우스	카레는 하나의 음식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확실하게 좋아하는 무언가가 마음 한구석을 채웠을 때 삶의 작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4 춤추는달팽이도서관/최 선미		평양랭면, 멀리서 왔다고 하면 안되겠구나/ 김양희/ 폭스코너	통일을 더욱 기대하게 하는 북한의 향토음식 이야기.  평양냉면, 고기쟁반국수, 언 감자국수, 텀게 찜, 초계탕 등 20여 개의 북한 향토음식과 수많은 사연들이 푸짐하게 담겨있다.
5 짱뽕이어린이도서관		밥 도감/고은정/현암주니어	거리두기, 혼밥의 시대...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던 밥상이 그림습니다. 나만을 위한 밥이 아닌 이웃을 위한 밥짓기를 위한 첫 발! 밥짓기를 배워보아요.
6 꿈나무도서관		식사가 잘못 됐습니다/마 키타 겐지/더난출판	건강의 차이가 곧 인생의 차이임을 절실히 느끼는 나이가 되었다.이곳저곳 몸의 신호를 받으며 식생활에도 관심 갖게 되었다. 지금까지 상식이라 생각되던 것들이 많이 혼란스러운 글들이 많다.*칼로리와 지방 섭취량은 비만과 무관하다*운동은 식후에 바로 하는 것이 좋다.*먹는 순서에 따라 살찌는 방식이 달라진다*과일은 주스로 갈아먹으면 살찐다 등...도대체 무엇이 올바른 식사법일까?
7 자람도서관		김치가 최고야/김난지 글, 최나미 그림/ 천개의바람	가을밭을 풍성히 수놓은 김치 재료들이 김치로 만들어지는 과정도 재밌고, 내가 최고라 자랑 잔치하는 모습까지 모두 정감 넘치고 사랑스럽다. 캐릭터도 이야기도 사랑스럽고 따뜻하다." 김치마다 자기 맛과 모양이 있는데, 자기만 최고라고 싸우면 쓰나? "묵은지 할머니의 일침이 귀에 맴돈다.

## 6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제주**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1	설문대어린이도서관/강영미	내 안에 나무/코로나 루켄/나는별	내 안에는 나무가 있어요. 내 안의 나무에는 바람이 불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진흙탕이 생기기도 해요.....
2	설문대어린이도서관/안수일	소금/박범신/한겨레	세상의 모든 소금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맛이 달라. 소금에 포함된 미네랄이나 아미노산 같은 것이 만들어내는 조화야. 사람들은 단맛에서 일반적으로 위로와 사랑을 느껴. 가볍지. 그에 비해 신맛은 나에게 시비를 거는 것 같고, 짠맛은 뭐라고 할까, 웅골찬 균형이 떠올라. 내 느낌이 그렇다는 거야. 쓴맛은 뭐냐. 쓴맛은, 어둠이라 할 수 있겠지."
3	설문대어린이도서관/김미영	파친코/이민진/문학사상	"드디어 집에 왔구나. 매일 집에 가는 생각을 했어. 한 시도 빼놓지 않고 말이야. 아마 그래서 이렇게 집에 돌아왔나 봐."
4	설문대어린이도서관/김미영	할머니의 팡도르/안나마리아 고치 글, 비올레타 로피즈 그림/오후의 소묘	"말랑한 누가 반죽이 바삭해지려면 하룻밤 식혀야 하죠, 비법은 오직 기다리는 거예요."

## 6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 충청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1	범지기10단지 푸른작은도서관/오유미	씨앗을 지키는 사람들/지은이 안미란/창비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다"라는 말이 있다. 의사들도 음식을 먹는 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여긴다. 인스턴트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유전자 조작 음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가장 쉬운 것은 자연스럽게 먹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한다. 예전에 읽은 동화이다. 아이들은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어른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강한 것 같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갑자기 아주아주 잘익은 새콤하면서도 풀맛나는 빨간 토마토가 먹고 싶다.
2	다울책사랑방 작은도서관/김은정	꽃밥 세상에서 가장 귀한 꽃/글 정연숙/그림 김동성/농장	우리에게 따뜻한 밥 한끼를 마련해 주는 대한민국 국민의 4.5% 230만여 명의 농민이있대요. 여든 여덟 번 농부의 손길과 정성이 필요한 쌀 한 톨 쌀 한톨에 우리의 삶과 미래가 담겨 있네요. 쌀 이야기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 생활과 생활변화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그림책입니다. '벼꽃 맛은 어떨까?' 벼꽃이 쌀이 되고, 쌀이 밥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벼꽃!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꽃이다.' 우리가 먹는 밥은 꽃밥이다 수백송이 벼꽃이 피어난 꽃밥' 소리 내어 읽다 보니 옛 생각이 새록새록 피어나고 참 정겹게 느껴지는 책이었어요.
3	초롱이네도서관/오혜자	요리는 감이여/지은이 51명의 충청도 할매들/창비교육	충청도 할머니들이 불러준 요리 레시피를 청소년들이 받아쓰고 그림도 그려 넣었습니다. 충남평생교육원에서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봉사자들의 구술기록도 같이 담았습니다. 무엇보다 친근한 음식과 입말이 딱 와닿습니다. "요리는 감이여"라는 제목에 이어, "이 나이쯤 되면 대충 눈대중으로 담궈두 난리가 나게 맛있는겨"라는 말에 "그러유~"라는 답이 절로 나옵니다.
4	해바라기도서관/홍근옥	착한 밥상이야기/ 작가: 윤혜신	때때로 음식은 단지 배를 불러기 위한 것이 아닌 그 이상의 무엇이 된다 음식은 위장뿐 아니라 마음을 위로하고 영혼을 따스하게 하고 삶을 충만하게끔 한다 (p.55)  시골에 살며 자연과 가까이 하다 보니 읽는 내내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다 먹는것에 대한 생각이 겸손해지는 책이다
5	성성푸른도서관/박민주	수박이 먹고 싶으면/김장성 (지은이), 유리 (그림)/ 이야기꽃	여름이 오면 수박이 생각합니다. 이 책은 우리가 여름에 쉽게 접할 수 있는 흔한 간식 수박이 땅에 심겨지고 우리에게 오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수박을 심고 따는 과정이 아니라 그 속에는 작은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정성과 노력, 자연의 이치와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엮보게도 해줍니다.
6	호숫가마을어린이도서관/권민정	음식, 잘 먹는법/지은이 유은주 그림 강영지 / 사계절	아이들과 책 보면서 같이 요리 해 먹고 정리하게 도와주는 책입니다.